

# “자연을 닮은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 2005 지현 자연미술제 오는 30일부터

지현초등학교(교장 이광열)는 오는 30일부터 8월1일까지 2박3일간 지현초등학교 및 지현리 일원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속에서 어린이들에게는 긍지를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추억과 자연미술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 '2005 지현 자연미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미술제는 기성작가들이 작품을 어린이들과 함께 제작하며 자연과 미술의 조화로운 모습을 깨달아가는 미술제로 설치미술, 현대미술작가 50인 초대전, 청소년 자연미술제 캠프, 2005청소년 한여름밤 운동장 음악회, 2005청소년 한여름밤 영화상영, 2005청소년 한여름밤의 축제, 2005청소년 우리민족의 삶과 예술특강, 별보기, 환경퍼포먼스, 길놀이 및 기타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미술제를 주최하는 지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양영석 위원장은 "지현초등학교는 자연을 닮은 아이들이란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위대한 자연속에서 배우고 꿈을 키우고 있다"며 "지현자연미술제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05 지현 자연미술제 포스터.

한편, 지현자연미술제에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나 학부모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어린이, 성인 구분없이 참가비는 1인당 2만

5천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532-3654(011-6564-66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자연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배워요”

#### 제6회 연꽃 어린이 캠프 참가자 모집

새소리, 바람소리, 숲의 온갖 생명체소리가 시원스레 킁전을 밝혀주고 스님의 목탁소리, 풍경소리를 벗삼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레 체득해 가는 제6회 연꽃 어린이 여름캠프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포천시 소흘읍 보문정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꽃 어린이 여름캠프는 유치부와 초등부 어린이 60명을 모집해 실시되며, 불교기초교리, 예절교육, 발우공양, 108배, 찬불가 및 율동, 물놀이, 게임, 참선, 촛불의식, 캠프포이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번 캠프의 참가비는 1인 3만 원이며, 참가를 위해서는 보문정사(031-542-0032)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

## 각 부문 최우수 학생 포천 대표학생 선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포천지역 예선대회가 지난 1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마쳤다.

오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경기도종합예술제 참가팀을 선발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예선대회는 포천시가 주최하고 포천교육청과 포천시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경연은 한국음악, 무용, 사물놀이 부문으로 구분해 실시했는데, 참가팀은 각각 8개팀, 16개팀, 13개팀으로 총 37개팀이다.

경기도종합예술제는 각 부문 최우수 학생들을 선발 출전하게 된다. 이날 각 부문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 ▶한국음악(독창) 황정은(축석초), 최준원(송우초), 오찬양(송우초) ▶기악합주 최유경 외 32명(내촌초) ▶한국무용(독무) 김승기(대경중) ▶한국무용(군무) 박효주 외 3명(포천여중) ▶현대무용 김진아(갈월중) ▶사물놀이(얇은반) 윤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 사물놀이 부문에 참가한 학생들이 경연에 임하고 있다.

초), 배미경 외 11명(선단초) ▶사물놀이(선반) 장은익 외 4명(포천여중) ▶고등부 ▶기악독주 나성광(동남고) ▶한국무용(독무) 양주용(포천중고) ▶조승열 외 16명(포천중고) ▶사물놀이(얇은반) 이상호 외 16명 ▶사물놀이(선반) 고미선 외 3명.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하루하루 키가 크는 연수



김연수 (학생예기자 동남중 1년)

이글은 동남중학교에서 실시한 2005 학생예기자 대회 1학년 최우수 상 수상 작품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작성한 글이다. (편집자주)

나의 존재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였다. 수많은 인간들 중에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결혼에서 지리온 14살의 소녀이다. 나는 아직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가지며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 가고 있다. 여지껏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나였지만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였는지 몰랐던 것이다. 나는 안동김씨 9대손, 알림사파로 족보에 적혀 나의 동생과 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였다. 어려서부터 끼가 많아 나의 재능에 할머니께서는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 하셨다. 하지만 그 뒤 일년 후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나는 무척이나 슬펐다. 그 뒤로 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고차 3학년때 한피를 매고 큰 도

복을 입고 태권도장에 다녔다. 날렵한 몸집에 끈기가 있어 운동도 잘했던 나는 커가면서 태권도 시합에 나가면 매번 메달을 따오곤 했었던 나였다. 어려서부터 육군 장교, 맛있는 여군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던 나는 그 꿈을 이루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였다. 나의 좌우명도 이와 같이 '남과 같이 하면 남 이상 될 수 없다' 라는 것처럼 항상 노력하였던 나였다. 나는 나의 꿈을 위해 지금 세상에 발을 내딛어 지금 달려 나가는 중이다. 하루하루 키가 크고 있는 나였다. 나는 어

느날 엄마게 한 말이 생각났다. 아주 어렸을적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질 않았지만 이 때만큼만은 정수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유치원에 다녔던 나는 다녔던 서 이런 얘기를 했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서 나와" 하고 내가 물었을 때 엄마는 날 보며 조금 놀라셨는지. 나를 부르시더니 엄마와 아빠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한 뒤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며 서로 이해하며 사랑해서 나를 낳아 주셨다고 하셨다. 그 어린 나이에 사랑이 뭔지를 무엇인지 알 리 없었다. 그러면서 연수가 하루하루 키가 크는 사이에 나의 몸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겨루기를 하는 날 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자아이 가 나

의 가슴을 강타한 것이었다. 다른 데에 맞고도 딱딱이 없었던 나였지만 그대로 꼬꾸라져 나뉘었던 적이 있었다.

바로 탈의실에 들어와서 가슴을 보니 발갛게 부어 가슴이 붓고 나와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부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갈수록 조금씩 커지는 가슴에 처음에는 창피해서 웅크리고 다녔지만 얼마가 그것을 알았는지 브래지어를 사오셨다. 맨 처음에는 그것이 무척 불편하였지만 지금은 불편함이 없다. 초등학교 5~6학년이 되자 점차 나의 친구들도 몸에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여럿 또래 친구들과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성과 몸에 대해 관심도 많아

혹 연하 남자아이들 아한 잡지들을 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춘기에만 이고 점차 줄어가고 있었다. 나도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또 몸에 대해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내 몸을 가꾸는 것이며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하므로 나의 몸이 대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도록 하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고자 생각했다.

'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나의 앞에는 나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21세기 의 밝은 내일을 향하여 나 '김연수'는 하루하루 키가 크고 있다.

### 김순진의 연재 수필

#### 아빠 어렸을 적에(33)

#### 노는 시간이면

단체 줄넘기에는 따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뚝뚝,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갑시다."

줄을 돌리며 아직 줄넘기가 시작되기 전에 술래 두 명과 놀이에 참가한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노래지요.

노래가 끝나면 이긴 편이 들어 가는데 이때에 술래 두 사람은 밧줄을 돌리고 나머지는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다.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줄넘기에 들어간 사람이 술래가 부르는 노래에 맞추어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거나 줄에 걸리면 죽는 놀이지요.

"소금장수 들어간다, 소금장수 들어와라, 기름장수 들어간다, 기름장수 들어와라, 엿장수 들어간다, 엿장수 들어와라, 박물장수 들어간다, 박물장수 들어와라, 장사꾼 모였다, 잘들 팔아라." 라는

노래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장사꾼을 보며 지은 노래랍니다.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가기 잘도 잔다, 칩 쪽, 칩쪽 쪽쪽, 칩쪽쪽 칩쪽쪽,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가기 잘도 잔다."

이 노래는 세 명이나 네 명이 하는 놀이로 왼발을 한 개씩 걸어 박수를 치며 빙글빙글 돌며 놀 때 부르는 노래인데 노는 사람도 재미있지만 보는 사람도 흥겹습니다.

"이야, " "돌로 찜았어?" "응, 공깃돌 깨뜨리다 집게손가락을 찜았어."

공깃돌을 깨뜨리다 손톱이 새까맣게 죽은 아이들도 많습니니다. 교실 옆 화단 옆에서는 골잘공기 시합이 벌어집니다.

공깃놀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한 알, 두 알, 세 알, 막, 꺾기 순이고 두 번째는 알날기, 세 번째는 개구멍, 그리고 네 번째는 솜뿔경이라는 순서

에 이어 꺾기로 손을 위에 공깃돌을 던져 올려 되받으면 점수가 되지요. 박수를 치며 받으면 점수를 곱으로 쳐 준답니다.

모듬공기는 자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돌을 깨뜨리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자갈을 많이 모아 놓고 꺾기로 자갈을 맞추어 잡기 좋게 나온 자갈을 공기와 같은 방식으로 돌 한 개를 높이 울리고 나머지 돌을 옮겨 권 뒤 높이 울린 돌을 받으면 되는 놀이인데 자갈은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긴답니다.

여자 아이들에 비하여 남자 아이들은 과격한 놀이를 좋아합니다. 나 역시 말뚝박기를 좋아합니다. 한편에 서너 명씩 편을 갈라 술래 편은 한 사람은 밖에 기대어 서고 다른 사람은 가랑이 사러 머리를 박고 엎드리는데 나머지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엎드리면, 공격 편은 멀리서부터 도움닫기로 뛰어 올라 등에 타고 술래와 공격편의 맨 앞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새로운 술래를 정하지요. 힘만 세서 좋은 건 아닙니다. 머리를 써서 가위 바위 보를 잘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위 바위 보! 이겼다."

"와... 까르르..." 제환이는 가위바위보를 잘 합니다.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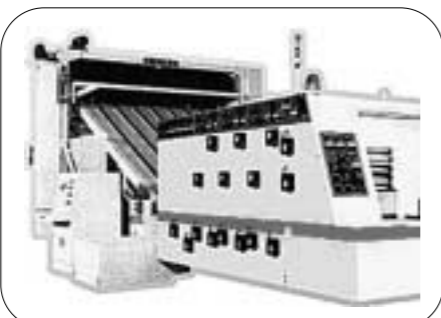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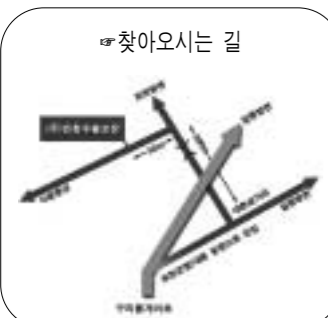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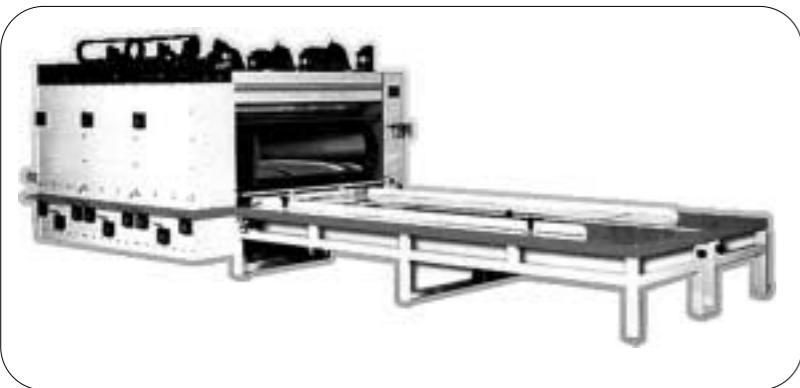
011-9123-4422

남들 낼 때 한 번 멈추었다 내면 심중팔구는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환이 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햇볕이 강한 여름에는 미루나무 그늘이나 교실 옆 그늘을 골라 앉아 고누놀이를 즐기고, 모래가 많은 철봉 가에서는 모래를 긁어모아 가운데 막대를 세워 조금씩 파내어 막대를 쓰러뜨린 사람이 지는 막대 쓰러뜨리기 놀이를 합니다.

철봉에 한사람을 세워놓고 철봉에 매달리며 하는 집게장난은 술래의 바지가 벗겨지고 고추가 보일 때가 있지요. 술래는 괴롭지만 노는 사람은 정말 재미있습니니다.

(계속)

# 21C 포장의 새바람 ‘은창수출포장’



- ★ 생산 품목  
내수용, 수출용, 식품용, 공업용, 농산물, 가구 등 다수
- ★ 박스 종류  
플랫박스, 톨슨박스, 컬러박스, 종이박스



대표 이희선

(주)은창수출포장 EUNCHANG.co.kr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  
전화 : 031)534-5753~5/팩스 : 031)534-5756